

손예진 “금기된 욕망, 저도 표현해볼 나이 됐죠” CNN과 인터뷰한 AI 배우

동명 영화 원작 넷플릭스 ‘스캔들’ 서 지창욱·나나와 호흡
정지우 감독 “캐릭터·인물 관계 새로… 영화와 많은 차이”

배우 전도연과 배우준이 출연한 영화 ‘스캔들’이 손예진과 지창욱이 주연한 동명 시리즈로 재탄생했다. ‘스캔들’은 영화 ‘스캔들-조선 남녀상열지사’ (2003)를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두 작품 모두 대혁명 직전 음모와 파멸이 난무했던 프랑스 상류 사회의 모습을 담은 피에르 쇼데블로 드 라클로외 소설 ‘위험한 관계’ (1782)를 조선 시대로 옮겨왔다.

손예진은 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스캔들’ 제작발표회에서 “영화와 달리 각 인물의 서사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배우로 더 욕심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가 개봉한 게 2003년이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며 “젊은 시청자는 새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공개되는 ‘스캔들’은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재능을 갖춘 사대부 여인 조씨부인과 조선 최고의 연애꾼 조원이 벌이는 위험한 사랑 내기에 정숙한 미망인 희연이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원작에서 이미숙이 연기한 조씨

부인을 손예진이, 배우준과 전도연이 맡은 조원과 희연을 지창욱과 나나가 각각 연기한다.

손예진은 “인간의 욕망이 금기화된 조선시대가 배경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며 “이젠 제가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창욱은 “영화가 인상 깊어서 어쩔 수 없이 선배님들의 연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며 “감독님과 많은 대화로 저만의 인물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나나 역시 “부담감을 갖고 그 부담을 원동력 삼으려고 했다”며 “원작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원작과 다른 신선함을 충분히 즐기면서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연출은 영화 ‘해피 엔드’, ‘은교’, ‘유열의 음악앨범’ 등을 만든 정지우 감독이 맡았다.

정 감독은 “2003년 한국 영화가 프랑스를 조선 후기로 옮겨온 건 위대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캐릭터와 인물 관계를 새로 썼기 때문에 영화와는 매우 많은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귀띔했다.

‘스캔들’에선 시대의 틀에서 벗



다정한 ‘스캔들’ 배우들.

연합뉴스

어나 자기 삶과 자아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인물들의 선택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손예진은 자신이 연기한 조씨부인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표정, 말, 속마음이 다 다른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연기를 하며 재봉틀로 옷감을 신나게 박는 캐릭터가 있다면, 조씨부인은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디테일을 완성해야 하는 캐릭터였다”며 “감독님과 대화하며 하나하나 숙제처럼 풀어갔다”고 말했다.

나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로 운명

에 따른 폐쇄적인 삶을 살다 조원을 만나 능동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에 눈은 자신의 역할을 떠올리며 “소극적이고 사람들을 경계하며 살아왔던 제 유년 시절과 많이 닮았다”며 “지금은 성격이 달라졌지만 제 모습을 되새겨 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한복, 서신, 민화, 판소리 등 한국적 요소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관소리가 이 작품의 시작과 끝을 여닫으며, 서신, 민화는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정 감독은 이런 요소를 통해 시청자들이 ‘K-사극’의 매력을 봐주길 바랐다.

연합뉴스

‘들쥐’, 넷플릭스 비영어 쇼 1위… 2주 만에 정상

류준열·설경구 주연의 스릴러 ‘들쥐’가 공개 2주 차에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다.

9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덤이 집계한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들쥐’는 440만 시청수(Views·시청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8일 넷플릭스 시리즈로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이 작품은 공개 첫 주 비영어쇼 5위로 출발해 2주 만에 정상에 올랐다.

국가별로는 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45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했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들쥐’는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이름과 얼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긴 은둔 소설가 제문재(류준열 분)와 사라진 돈을 되찾으려는 사채업자

노자(설경구), 그리고 박순용 형사(이규형)가 들쥐의 실체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한국 전통 설화 ‘손톱 먹은 들쥐’에서 모티브를 얻은 참신한 설정과 강렬한 서스펜스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들쥐’를 포함한 한국 작품은 총 4편이 비영어 쇼 톱 10에 포함됐다.

송강·이준영 주연의 ‘포맨즈’가 넷플릭스 공개 첫 주 5위로 처음 진입했다.

공개 이후 줄곧 톱 5에 들며 상위권을 지키던 정해인·하영 주연의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에서 1위에 오른 ‘들쥐’.

넷플릭스 투덤 제공

‘이런 옛것은 사랑’은 이번 주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은빈·양세종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오썽한 연애’는 10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연상호 감독 신작 ‘실낙원’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다음 달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연상호 감독의 신작 ‘실낙원’을 공식 초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가장 감독의 신작이나 주목받는 화제작을 선 보이고, 감독과 배우 등이 관객과 만나는 섹션이다.

제51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된 실낙원은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프리미어로 국내 관객에게 첫선을 보인다.

실낙원은 실종됐던 아들이 9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로, 배우 김현주와 배현성이 주연을 맡았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5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양의 딸(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바다 건너 사랑 6(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푸라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섹션(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방불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푸라기 탐구생활 11:00 세 개의 시선(재)	8:50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호 9:20 처음 배우는 시 11:05 세계테마기행 13:25 지식채널e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6:40 최고다! 호기심 박사 17:10 피파 피크 18:50 귀하신 몸 21:55 왔다 내 손주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헤드림 컴파니 14:00 KBS 뉴스 14:10 팔도방송 스페셜 14:30 종재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5 17:30 탐나는 제주	12:10 동네 한 바퀴(재) 13:15 일일드라마 목양의 딸 스페셜 14:45 누가 누가 잘하나 15:45 여기는 나고야 [농구] 남자 A조 예선 대한민국·사우디	12:00 12 MBC 뉴스 12:25 PD수첩(재) 13:25 뽀빠뽀 뽀이뽀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4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아게임 [농구] 남 A조 예선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12:00 SBS 12 뉴스 12:45 뽀로로와 친구들 13:00 건강간호(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나고야 2026 [농구] 남 A조 조별 리그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9:00 KCTV 9시 뉴스 한가지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61년 직장이나 자식문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3년 돈 문제로 다름이 있으며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86년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있다.
제주CBS FM 93.3MHz 90.9MHz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문승부 20:00 CBS 뉴스	18:00 경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양의 딸 20:30 신상출시 편스토랑 22:00 너 말고 다른 연애 미리보기 22:10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재) 23:50 농현에는 따라잡기	18:05 제주엔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제주MBC 청사 특집 다큐멘터리 22:00 구해제! 홈즈 23:50 MBC 뉴스 25	18:0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한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기미한 연애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TBN제주교통 FM105.9MHz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0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즐거움 행복의 마음으로 자기취미를 걸자. 48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계망동은 비웃음 대상이 된다. 60년 시비, 구설이 오거나 소송건이 오니 매사 신중하는 게 좋다. 72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84년 좋은 인연 만들거나 모임에 합류하면 좋다.

37년 하는 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려고 한다. 49년 한가지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61년 직장이나 자식문제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3년 돈 문제로 다툼이 있으며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86년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있다.

38년 병환의 회복이 더디다. 안전사고 유익. 50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 시 자제나 보류. 62년 휴직자는 일이 생기고, 활동인은 업무가 가중돼 피로가 누적. 74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86년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하면 이익이 풀린다.

39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51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63년 약속이나 갈 곳이 많다. 75년 사소한 언쟁이 사이를 갈라 놓으니 미혼자는 이혜타산을 논하지 마라. 87년 협조가 있어 일이 성사되고 결과가 있다.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라.

40년 친구나 주위와 음식이나 운동을 함께 한다. 52년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직업으로 갈등한다. 64년 자녀 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76년 신경이 예민하거나 시작할 때 또는 두통이 오니 부리하지 말 것. 88년 일이 필요할 때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1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53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5년 변화가 필요하면서 막상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77년 약속이 생기고 모임이나 친목에 나간다. 89년 외출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 갈 일이 생긴다.

42년 작은 일이라도 작심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54년 확실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마라. 66년 가정 안에서 불화, 논쟁은 상처가 오래가니 대항하지 말 것. 78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90년 문서 관련 소식과 이익이 있다. 건강은 유익.

43년 전무직업은 활기가 오니 직업 고려 필요. 55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상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동료 간 관계 개선 유지할 것. 91년 시비 구설이 오니 나서는 일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44년 일의 성과는 만족을 못하나 구사일생의 기본으로 세 출발. 56년 밤낮없이 일한 성과가 있으니 피로함을 잊는다. 68년 가정에서는 화목해도 친척 또는 집안에 근심이 생긴다. 80년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분야에 도전해 미래 준비를 하라. 92년 흥겨운 컷소리가 은은하다.

45년 문서로 인한 일로 신경을 쓰게 되거나 자녀 일로 걱정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생기니 적극적 활동이 요구. 69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일이 호전된다. 81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함도 필요. 93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6년 뜻하는 바를 이루니 참으로 기쁨이 있다. 58년 영업에 이익이 있기도 하지만 변화를 주려는 사람이 많다. 70년 자격 또는 면허를 갖고 하는 업은 기쁨이 많아진다. 82년 직업인은 변동·변화를 추구하려 하며 마음에 도움이 생긴다. 94년 여가처지에 별려있는 일들이 내 맘에 안드니 잔소리가 커질 수 있다.

47년 활동력이 왕성하고 외부영업도 분주하다. 59년 한 가지 직업에서 성공하니 전문적이 좋다. 71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83년 돈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과가 미흡. 95년 아랫사람의 배려가 있지만 금전적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다.